



김진숙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37년 만에 복직

25일 영도조선소 명예복직 기념식 ... 노조, “세상 잔혹함도 노동해방 투사를 꿰리지 못했다”

김진숙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해고 조합원이 37년 투쟁 끝에 복직한다.

금속노조와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은 2월 23일 11시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 조합원의 명예복직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복직 날짜는 2022년 2월 25일이다.

김진숙 조합원은 이날 SNS를 통해 “수천 번 마음속으로 외쳤던 말. ‘저 복직해요’ 복직하는 날 퇴임식을 하지만 공장에서 조합원들 이랑 같이 밥 먹고, 박창수·김주익·곽재규·최강서가 일했던, 그리고 제가 일했던 현장을 37년 만에

돌아보고 오는 꿈에 그리던 날” 이라면서 “내일모레 25일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벅찬 눈물로 인사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 인간을 해고의 감옥에 37년 동안 가두는 야만 행위가 이성인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라는 절규에도 자본은, 그리고 청와대는 귀를 닫았다. 그러나 세상의 잔혹함도 노동해방 투사 김진숙을 무릎 꿰리지 못했다” 라고 선언했다.

김진숙 조합원은 1981년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1986년 강제 부서이동을 당한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김진숙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7년 동안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김진숙의 37년 세월 안에서 회사 주인은 세 번 바뀌었다. 1986년 해고 당시 대한조선공사에서 1989년 한진중공업으로, 2021년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인수해 HJ중공업이 됐다. 해고자 김진숙은 2020년 12월 31일 만 60세 정년이 되면서 복직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김진숙 조합원의 명예복직행사는 2월 25일 오전 11시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단결의 광장에서 연다.

“파견법 폐지, 대선 공약하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대선 후보 TV 토론회장 결의대회 ... 비정규직 의제 실종 대선 규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경해 여야 대선후보 4인을 향해 불공정, 불평등의 대명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290여 명의 조합원들이 2월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불평등 불공정의 대명사 비정규직철폐 결의대회’ 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대회장 주위에 ‘대

선 후보들에게 고함. 대선후보들은 파견법 폐지를 약속하라’, ‘문제는 불평등, 해결법은 비정규직 철폐가 답이다’, ‘불법파견 범죄의 원조, 정의선 회장 처벌로 불법파견 근절’ 등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병용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대회사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 양극화의 주요 현상인 비정규직 문제를 대선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다” 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

으로서 공식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파견법 폐지를 공약하라” 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대선 토론회장인 MBC를 바라보고 108배를 했다. 조합원들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대통령’,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정의선 회장, 안동일 사장 불법파견 범죄 사죄’ 등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노사대등 원칙 · 산업전환기 그룹사 공동투쟁 결의”

현대자동차지부 정기대의원대회 ... “4만6천 조합원 단결투쟁, 승리 확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대등 원칙에 따라 산업전환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지부 · 지회 공동투쟁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월 21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9대 집행부 첫 대의원대회로 3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2022년 사업 목표로 ▲현대자동차지부 위상 강화 ▲단체협약 사수 ▲산업전환기 고용안정 대책 마련 ▲차별철폐 ▲해고자 문제 해결을 내걸었다.

안현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대의원대회를 개최사를 통해 “대의원 동지 여러분, 코로나 19 3년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타나 조합원들은 불안감을 안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위기를 조장하고 현장 탄압을 일삼는다” 라고 무겁게 입을 뗐다.

안현호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올해 사업 목표 다섯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노사협조가 아닌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변화 상황에 대처하겠다. 4만6천 조합원이 단결해 투쟁하면 2022년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제위기와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선이 한창이다. 노동 의제는 거의 없는 최악의 대선을 보고 있다” 라면서 “금속노조가 20만 조합원 힘을 하나로 모아 새 정부와 한 판 투쟁을 벌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다” 라고 정세의 엄중함을 알리며 총파업 조직을 호소했다.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이 축사를 통해 “지난 연말 회사가 지급한 ‘텔런트 리워드’를 우리는 ‘차등성급’ 이라고 부른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상벌제도를 시험 가동하고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동의할 수 없다” 라며 현대차, 기아차 두 지부가 투쟁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홍진성 지부장은 “현대차 · 기아자동차지부가 산업전환기 막연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조합원 동지들의 미래고용안정을 지키는 투쟁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시기를 열고자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라고 밝혔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대의원대회 기념행사를 마치고 ▲김범진 금속노조 기획실장의 ‘2022년 금속노조 사업계획 · 투쟁방침 설명’ ▲김은주 지부 여성문화실장의 ‘성폭력 예방 교육’ 순으로 대의원 소양 교육을 했다. 지부는 이번 주 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